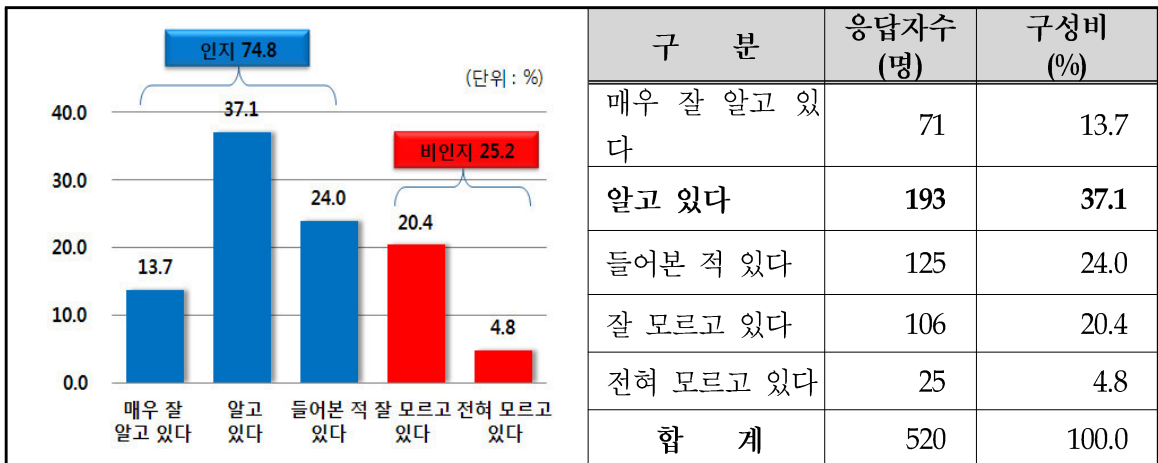


(1) 재외국민 투표권 인지도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에 관하여 평소 알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193명으로 전체 응답자 (520명) 대비 37.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들어본 적 있다 125명(24.0%), 잘 모르고 있다 106명(20.4%), 매우 잘 알고 있다 71명(13.7%), 전혀 모르고 있다 25명 (4.8%) 순으로 조사되었다.

재외국민 투표권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매우 잘 알고 있다 + 알고 있다 +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74.8%로 나타났으며,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잘 모르고 있다 +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25.2%로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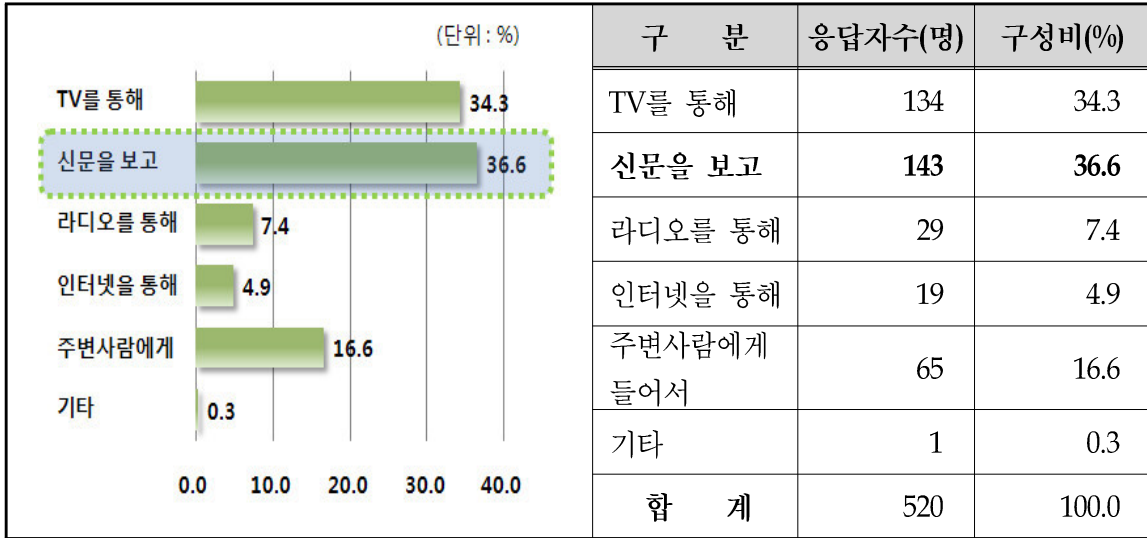
<표 II-1> 재외국민 투표권 인지도



(2) 재외국민 투표권 인지경로

재외국민 투표권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 신문을 보고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143명으로 전체 응답자(1,040명) 대비 36.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TV를 통해서 134명(34.3%), 주변사람에게 들어서 65명 (16.6%), 라디오를 통해 29명(7.4%), 인터넷을 통해 19명(4.9%), 기타 1명(0.3%)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I-2> 재외국민 투표권 인지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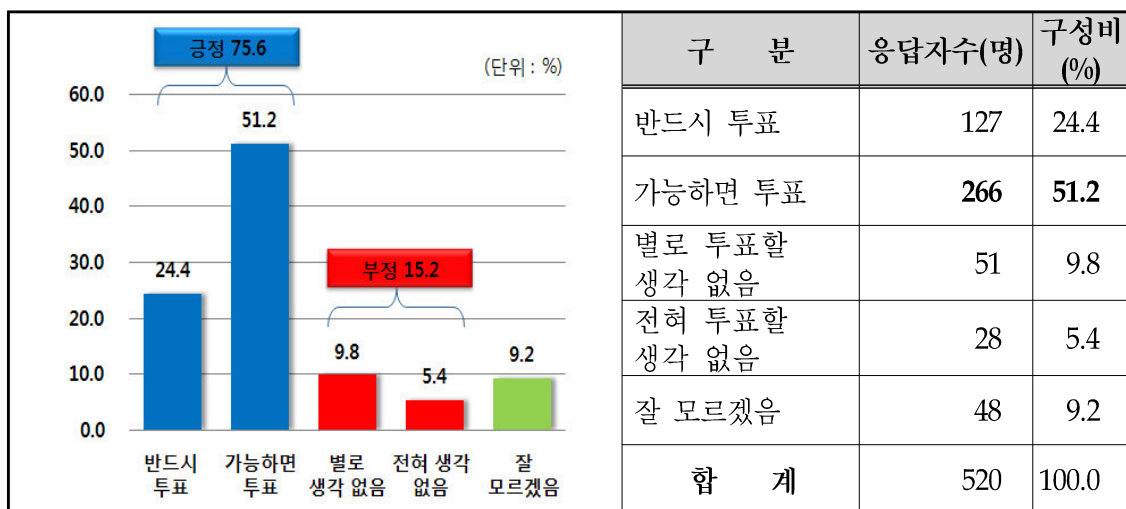


(3) 2012년 대선 및 총선 투표 참여 의향

공직선거법 개정됨에 따라 2012년 대선 및 총선에 투표할 의향이 있는가 하는 물음에,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266명으로 전체 응답자(520명) 대비 51.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반드시 투표할 것 127명(24.4%),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51명(9.8%), 잘 모르겠음 48명(9.2%),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28명(5.4%) 순으로 조사되었다.

2012년 대선 및 총선 투표 참여의향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의사는 75.6%, 부정적인 의사는 15.2%로 나타나, 투표 참여의향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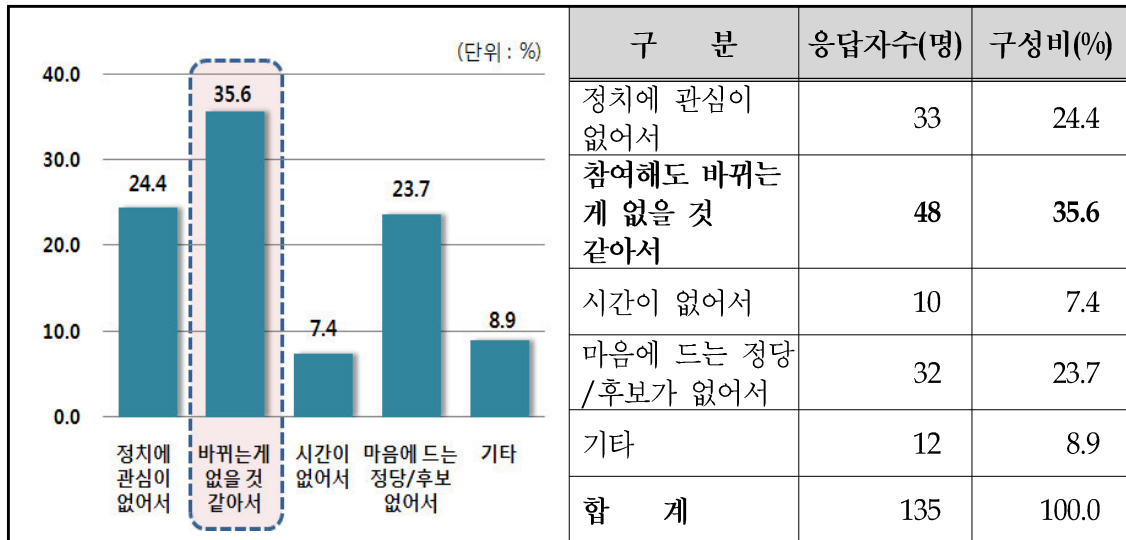
<표 II-3> 2012년 대선 및 총선 투표 참여 의향



4. 투표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이유

투표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이유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투표에 참여해도 바뀌는 것이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8명으로 전체 응답자(135명)대비 35.6%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정치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 33명(24.4%), 마음에 드는 정당/후보가 없어서 32명(23.7%), 기타 12명(8.9%), 개인적인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10명(7.4%)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I-4> 투표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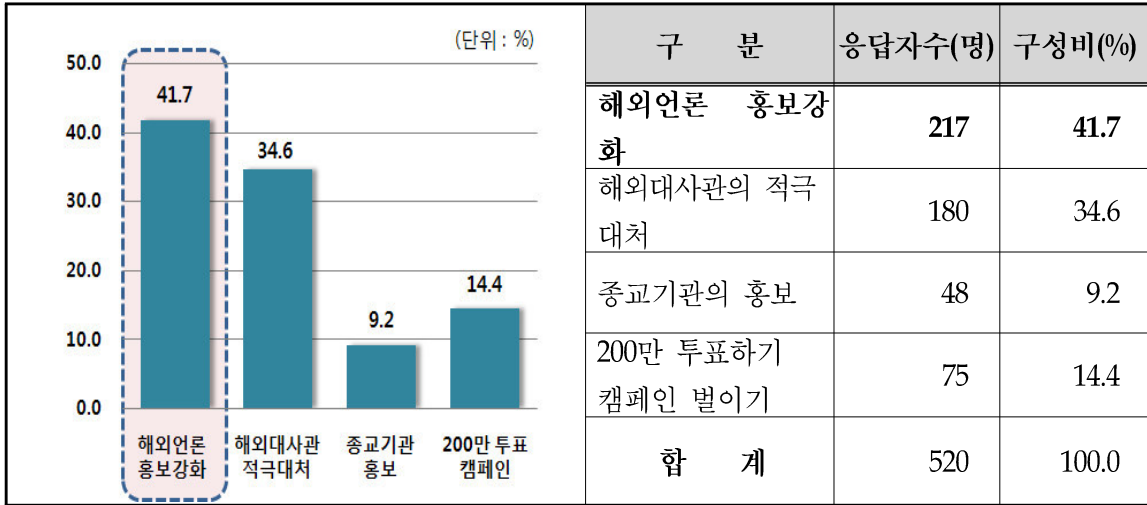


#### 5. 재외국민 투표율 향상 방안

2012년 대선 및 총선과 관련하여 재외국민들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해외언론 홍보강화라는 응답이 217명으로 전체 응답자(520명) 대비 41.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해외 대사관의 적극 대처 180명(34.6%), 200만 투표하기 캠페인 벌이기 75명(14.4%), 종교기관(교회 등)의 홍보 48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 투표율 향상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대부분은 해외언론을 통한 홍보강화와 해외 대사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어, 선거권자 개인의 노력보다는 대한민국 정부 및 기관의 노력을 더욱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5> 재외국민 투표율 향상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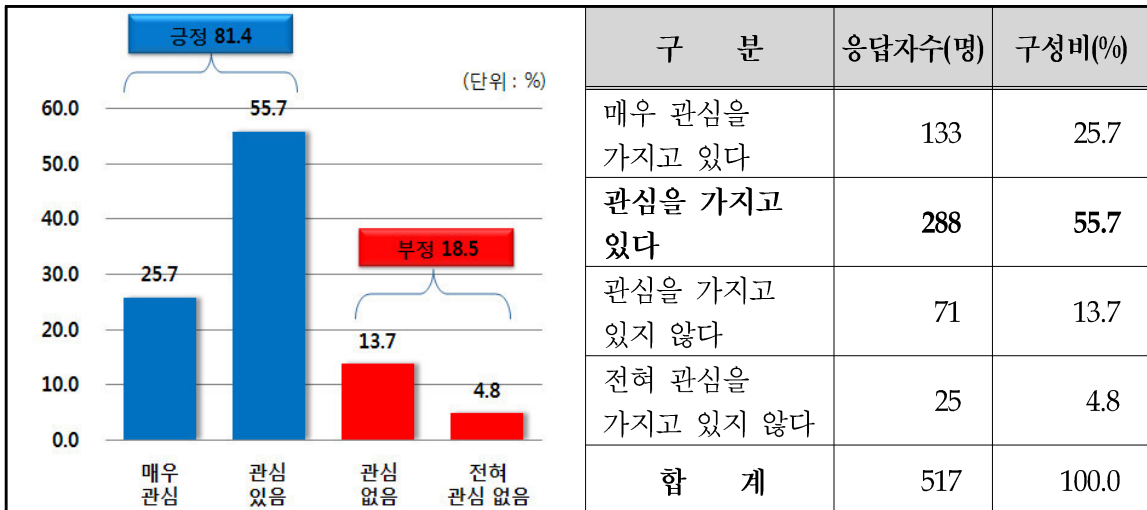


6.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관심

평소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288명으로 전체 응답자 (517명) 대비 55.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다 133명(25.7%),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71명(13.7%),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25명(4.8%)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 중 긍정적 의견의 응답률은 81.4%로 부정적 의견 18.6%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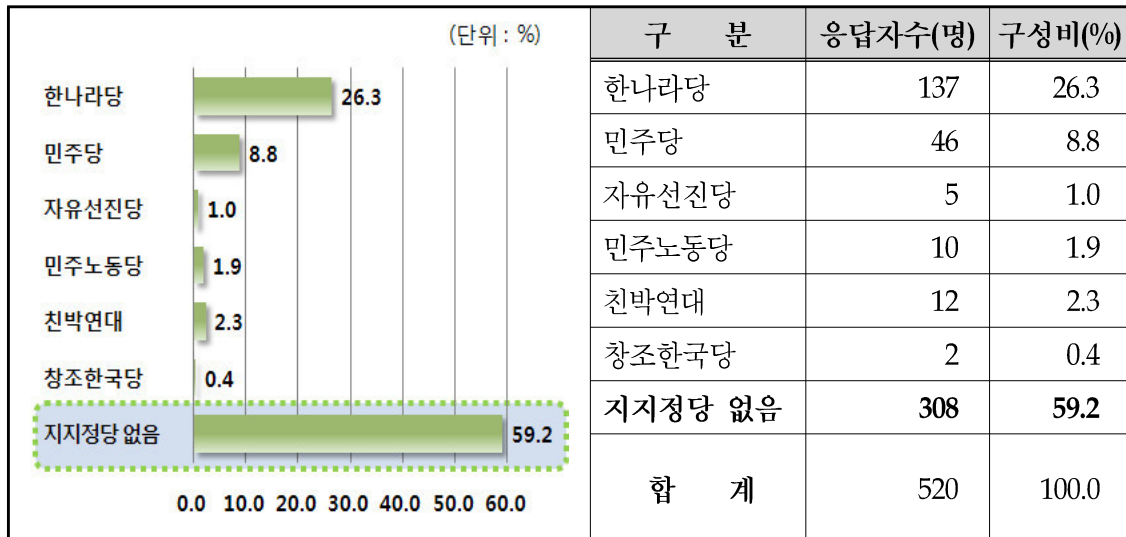


주) 무응답 3명 제외

7. 지지하는 정당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가에 대해 설문 조사 결과,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308명으로 전체 응답자(520명) 대비 59.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137명(26.3%), 민주당 46명(8.8%), 친박 연대 12명(2.3%), 민주노동당 10명(1.9%), 자유 선진당 5명(1.0%), 창조 한국당 2명(0.4%)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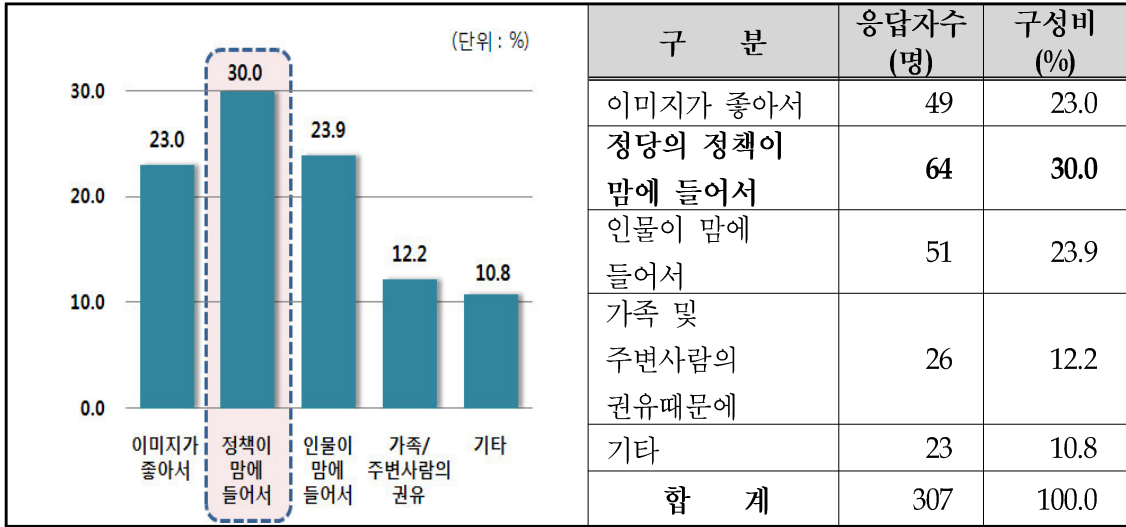
<표 II-7> 지지하는 정당



#### 8. 특정 정당 지지 이유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정당의 정책이 맘에 들어서라는 응답이 64명으로 전체 응답자(307명) 대비 30.0%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정당의 인물이 맘에 들어서 51명(23.9%), 정당의 이미지가 좋아서 49명(23.0%), 가족 및 주변 사람의 권유 때문에 26명(12.2%), 기타 23명(10.8%) 순으로 나타났다. LA 지역 재외국민들의 경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 대부분이 지역이나 학연, 혈연보다는 각 정당의 정책, 인물, 이미지 등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바람직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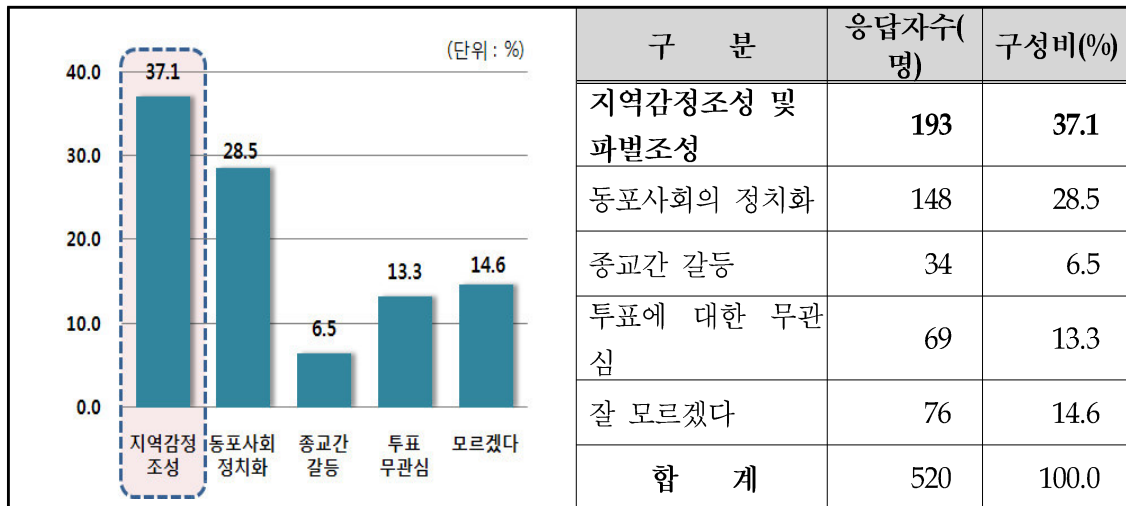
<표 II-8> 특정 정당 지지 이유



9. 재외국민 투표 참여 시 문제점

재외국민 투표 참여 시 문제점에 관한 설문 결과, 지역감정조성 및 파벌조성이라는 응답이 193명으로 전체 응답자(520명) 대비 37.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동포 사회의 정치화 148명(28.5%), 잘 모르겠다 76명(14.6%), 투표에 대한 무관심 69명(13.3%), 종교 간 갈등 34명(6.5%)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I-9> 재외국민 투표 참여 시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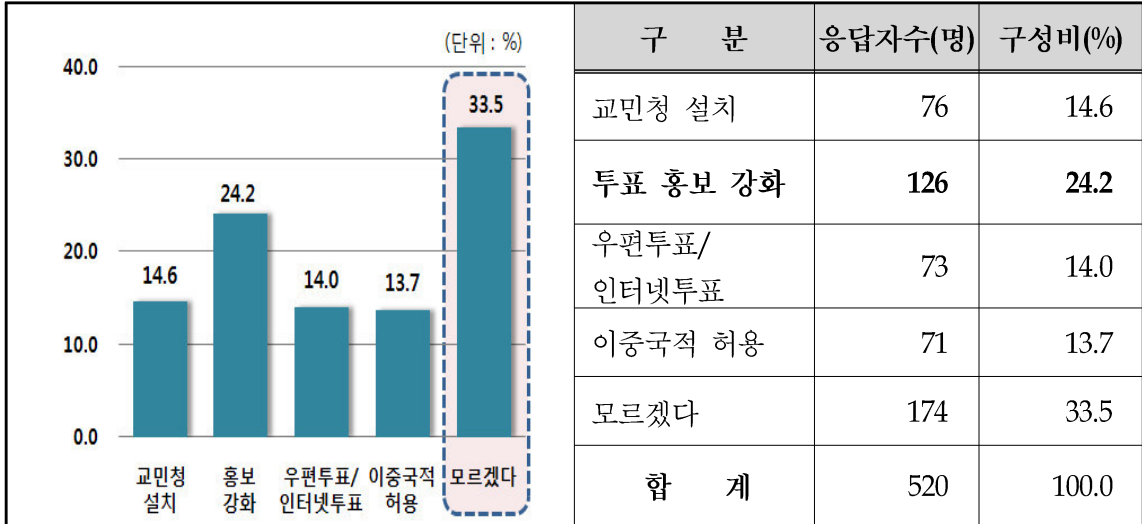


10. 재외국민 투표권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재외국민 투표권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 모르겠다 는 응답이 174명으로 전체 응답자(520명) 대비 33.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투표 참

여에 관한 홍보 강화 126명(24.2%), 교민청 설치와 재외동포 업무 일원화 76명(14.6%), 우편 투표나 인터넷 투표의 허용 73명(13.7%), 이중국적문제 허용 71명(33.4%)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10> 재외국민 투표권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11.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 바라는 점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부정부패 없는 정치를 소망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396명) 대비 18.4%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협력하고 싸우지 않는 국회가 되기 바란다는 의견 57명(14.4%), 지역갈등을 없애는 정치를 바란다는 의견 56명(14.1%)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 의견으로 정치를 잘해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7.6%),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되길 바람(6.8%),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대한민국 소망(7.6%), 새로운 정치인 발굴 및 입문(3.0%), 남북관계개선 및 평화 통일 대비(4.5%), 높은 도덕성에 기초한 성숙된 정치(6.1%), 미래 지향적이고 투명한 정치를 바란다는(6.6%)는 의견이 있었다.

기타 의견(10.9%)으로는 시민권자에도 투표권을 인정해야 된다, 촛불집회, 군중심리 주도정치 말아야 한다,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언론 부패 청산해야 한다, 친북세력 청산해야 한다, 대통령 퇴임 후 부패 척결 등의 다양한 의견이 조사되었다.

<표 II-11>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 바라는 점

응답 내용	응답자수(명)	구성비(%)
정치를 잘해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	30	7.6
지역갈등을 없애는 정치를 바람	56	14.1
싸우지 않고 협력하는 국회가 되길 바람	57	14.4
<b>부정부패 없는 정치 소망</b>	<b>73</b>	<b>18.4</b>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되길 바람	27	6.8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대한민국 소망	30	7.6
새로운 정치인 발굴 및 입문	12	3.0
남북관계개선 및 평화통일 대비	18	4.5
높은 도덕성에 기초한 성숙된 정치	24	6.1
미래 지향적, 투명한 정치 바람	26	6.6
기타	43	10.9
<b>합 계</b>	<b>369</b>	<b>100.0</b>

주) 무응답 124명 제외

## VI.결 론

재외국민 참정권은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헌법 24조에 모든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거권을 가진다. 라고 명시 되어 있다.

전세계에 700만명이 넘는 재외동포를 보유한 한국은 마침내 재외국민의 투표권행사를 할수 있는 개정법률을 지난 2월 통과 시켰다. 주지하듯이 국민의 참정권은 선거권확대 과정으로 발전해온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과제이다.

Global시대 국가간에 경계가 약해지면서 국민국가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나라의 영토를 특정지역으로 지칭하는 공간적 개념만이 아니라 같은 혈통과 문화유산을 공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로 확대시키는 문화영토 개념으로 해석한다.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미국,일본,중국,러시아 4대강국 중심에 위치한 한국의 생존을 위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외동포의 존재론적 기능활용이 절실하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실시는 치열한 국제경쟁사회에서 전략지역인 미.일.중.러에 포진하고 있는 700만에 이르는 재외동포사회에 국가에 대한 귀속감과 책임의식 강화는 전세계 한국인과 모국이 한민족 공동체로 결속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어느덧 100년을 넘어선 한인 이민역사를 반추하면 재외국민들에게 선물이 주어진 셈이다. 일제때는 독립운동에, 외환위기때는 환란극복을 위해 성금을 모아 모국으로 보냈던 그들이 다. 이들에 대한 참정권 부여로 한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을 회복할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완벽한 제도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재외국민들이 권리행사하는 투표장소가 지정된 재외공관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관할구역이 넓은 곳은 교통비가 많이 들고 시간낭비가 많아 투표하기가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편투표나 인터넷투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국회의원 비례대표 및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선거 때에도 투표범위를 넓혀야 하며, 외국의 이탈리아처럼 일정비율의 재외국민 대표를 국회로 보내야 하는 점 그리고, 바다위의 원양어선 같은 곳에서도 선상투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들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주요정당들은 재외동포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해외교민청을 설치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재외국민을 지지세력화하기 위해 해외지부나 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당내에 재외동포특위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외국민들이 납세 및 병역의무는 저버린 채 투표권만 행사한다는 점에 대해 일부 국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재외한인회장을 비롯한 단체장들이 본연의 봉사업무는 뒤로하고 정치진출의 발판으로 생각해 동포사회를 혼탁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또한 국내정치문제나 출신 지역별로 의견이 달라 동포들의 화합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

어떤 제도든지 초기에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재외국민 참정권 허용은 이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이자 시대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 강명구, 1993. 「자본주의적 공간분화와 정치과정의 전개」 『경제와 사회』. 20호, 한울
- 강원택, 2003. 「한국의 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서울: 푸른길
- 국제평화전략연구원 엮음, 1997.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 풀빛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2008. 12.16 국회행정안전위원회.
- 김광수, 김희진, 탁진영, 2004. 「정치후보자에 관한 유권자의 인지구조.」  
한국언론학보, 제48권 5호, 243-418
- 김광수, 2002. 「선거와 정당」, 박영사
- 김형준, 유성모, 1996. 유권자의 정당지지 분석: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4호, 299-320
- 김범배, 2009. ND리서치. 남도발전연구소.
- 배미경, 2006. 한국의 정당 PR에서 공중 관계성 평가차원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논문.
- 심지연, 2003. 「정당개혁과 의정활동의 방향.」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103-116
- 오승용, 2003. 한국 분점정부의 대통령-의회관계 연구.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박사 논문
- 이규태, 2000. 「한국인의 의식구조 1」, 서울: 신원문화사
- 이갑윤, 1998. 「투표행태의 민주화」 김호진외 「한국정치의 민주화.」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이준한, 임경훈, 2005. 「과연 중대선거인가?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유

권자 투표결정요인 분석.]」

이현출, 2004. 한국 유권자의 정당지지 구조와 안정성. 대한정치학회보 제 12집 2호 129-154

박찬욱 편.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 분석」 서울. 푸른길

정득규, 1975, 한국인의 정치의식과 투표행태의 분석. 정치학박사학위논문  
전라남도선거인을 중심으로

정진민, 2001,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체계의 변화: 정당체계 재편 가능성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제7권 2호

조기숙, 2000 「지역주의 선거와 합리적 유권자」 서울, 나남출판

중앙일보, 2009. 4.17. 재외국민투표관련 기사.

폴리시앤리서치, 2008. 8.29. [www.polsearch.co.kr](http://www.polsearch.co.kr)

Lazarsfeld, Berelson, & Gaudet, 1998(1988); Berelson, Lazarsfeld  
& Mcphee, 1994; Katz & Lazarsfeld, 1995

Huckfeldt, 1979; Huckfeldt & Sprague, 1987,1991; Huckfeldt,  
Beck, Dalton & Levine, 1995

Laumann, 1993; Weatherford, 1982; Knock, 1990; Zuckerman,  
Valentino & Zuckerman, 1994.